

친환경·비대면 트렌드 선도하며 시장 이끌어, 롯데렌터카

대한민국 No.1
롯데렌터카



롯데렌터카, 더 강력해진 EV 퍼펙트플랜 출시

롯데렌터카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전기차 장기렌터카 누적 계약 대수 15,000대를 돌파했다.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이며 2021년 전기차 계약 대수 약 6,600대를 달성, 누적 계약 약 15,000대를 넘어섰으며, 그중 개인 고객은 약 4,200대(63.1%), 법인 계약은 약 2,400대(36.9%)였다. 이는 전기차 고객 빅데이터를 통해 인기 차종, 트림, 옵션 등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차량을 선구매하여, 고객에게 최소 1일, 평균 18일 이내에 차량 인도가 가능한 점이 유효했다. 전기차 풀패키지서비스인 'EV 퍼펙트플랜'은 이러한 전기차 리더십을 토대로 출시됐다. EV 퍼펙트플랜은 전기차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로 전기차 시장에 차별화를 제공한다. 롯데렌터카의 전기차 장기렌터카를 계약하면 자동 가입되며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든 고객에게 배터리 안심케어, 충전 요금 할인, 충전기 설치 지원까지 전기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객의 편리한 전기차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전기차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88시간 카셰어링, 단기렌터카 쿠폰팩이 무료 제공된다.

또한 충전사업자 에스트라픽과의 제휴를 통해 법인고객 대상으로 약정량 기반의 충전기 무상설치 지원을 진행한 가운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구독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이에 대형 법인에는 이동형 충전 특장차를 통해 무료긴급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렌터카, 스마트 키박스·딜리버리서비스 등 비대면서비스 확대

롯데렌터카는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 키박스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카셰어링처럼 비대면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안전과 사용 편의성을 증대시킨 회원전용 서비스로, 현재 전국 43개 지점에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고객들에게는 안성맞춤 서비스이다.

또한 렌터카 사용 과정에서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딜리버리서비스는 렌터카 이용 시 지점을 직접 방문해 차량을 대여하는 대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렌터카를 대여 및 반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더했다.

롯데렌터카는 전국 영업망과 24만 대가 넘는 다양한 국내외 차량을 보유, 국내 1위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렌터카 브랜드이다. 롯데렌터카의 서비스는 자동차를 빌릴 때, 살 때, 팔 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자동차 생활의 풀 라인 업(Full Line Up)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딱 맞는 자동차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카셰어링, 렌탈, 리스, 중고차 렌탈, 중고차 리스 등 렌탈서비스와 전문가 감정으로 최저가 보장이 가능한 내차팔기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렌탈(주) 대표이사 사장 김현수

롯데렌탈의 대한민국 No.1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가 프리미엄브랜드지수를 14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창조(Create a Better Life)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렌터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